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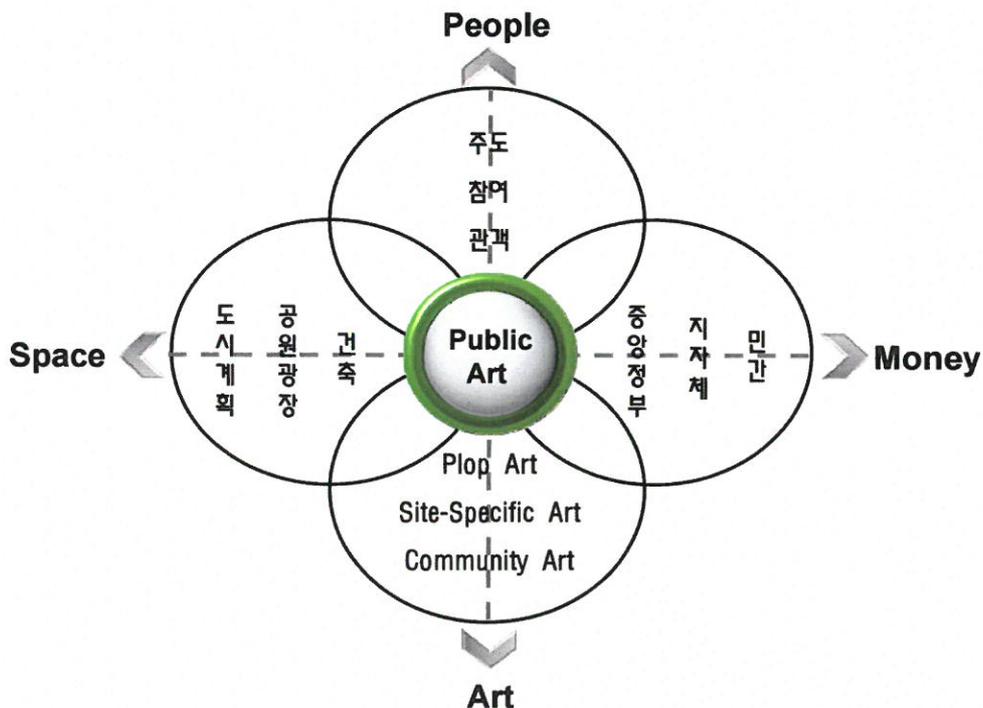
##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윤태건 더 톤 대표 : 공공미술과 해외 조각  
2020. 6. 13 (5회차)

○ 공공미술(Public Art)은 공공(Public)의 의미와 미술(Art)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사실 공공미술의 역사는 공공과 미술, 공공성과 예술성을 대하는 태도와 차이에 따른 논쟁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예술이란 개인의 자율적 표현의 결과물이며, 그 감상 또한 사적인 미적 전유에 의한다”는 모더니스트 미학의 사적영역과 사회, 집단, 공공이라는 공적영역이 이율배반적으로 결합된데 기인한다. 이같은 모순은 역설적으로 공공미술의 논쟁의 출발이자,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을 매우 다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공공미술은 환경미술(Environmental Art), 야외조각(Outdoor Sculpture), 장소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다. 하지만 재원(공공기금), 장소(공공장소), 관객(공중), 내용(공공적 맥락), 목표(시민참여지향) 등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공미술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도심의 공공장소에서 보여질 것을 전제로 구상되고 실현된 예술행위를 지칭한다. 이것은 공공장소에 놓여지는 미술,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미술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처럼 공공미술은 선사시대 동굴벽화로부터 역사상 “모든 미술은 공공미술이다”는 정의가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1967년 존 월렛의 <도시 속의 미술 Art in the City>에서 처음 등장했다. 제도로서의 공공미술의 역사는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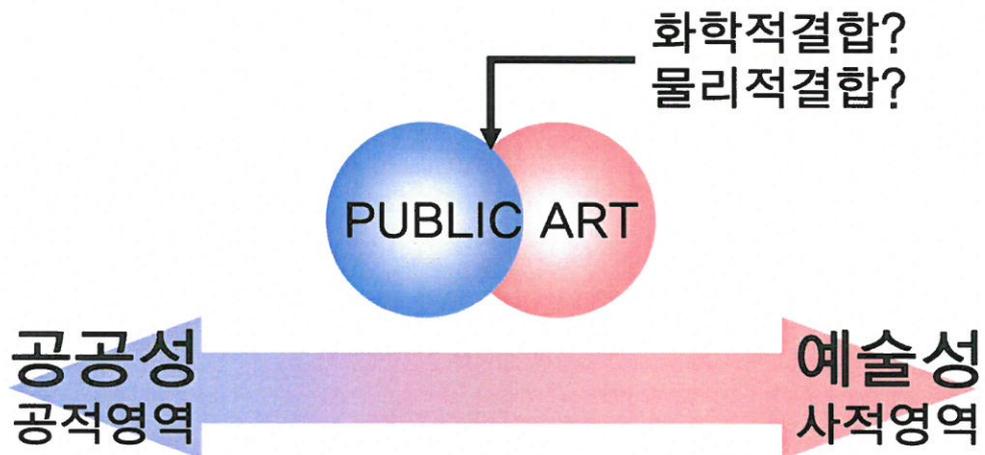


○ 공공미술은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유통되는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공공미술은 비인간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문화적 치유와 지속 가능한 도시 형성의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 국내의 공공미술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법' 또는 '1%법'과 혼동되거나 등가시되어 왔으나 실제 공공미술은 미술장식품 법과 상관없이 미술가나 기업, 지자체 등에 의해 조성된 작품들도 포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미술은 설치 장소와 비용 등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해 미술장식품 제도는 국내 공공미술의 존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공공미술의 출발점이자 대다수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재정적인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 제도는 공공미술의 확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34년 미국에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프랑스에서는 1951년, 한국에서는 1982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초기 단계의 공공미술의 개념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장식적인 개념에 있었으나 사회 안에서 미술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이같은 공공미술의 확장은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도시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공공미술의 형식과 방법이 서로 혼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미술의 기업의 마케팅 영역으로 확장되고, 건축, 디자인 등 인접 장르까지 확장되면서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 공공미술 패러다임의 확장

구분	특징	비고
<p>건축 속의 미술 Art in Architec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작품을 통한 공공건물의 미적 가치 제고</li> <li>-프랑스 1%법(1951)</li> <li>-미국 연방정부공공시설청(GSA) 건축 속의 미술프로그램</li> <li>-작품경향 : 순수미술 위주</li> </ul>	
<p>공공장소 속의 미술 Art in Public Pla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 활성화</li> <li>-NEA '공공장소 속의 미술프로그램'(1967)</li> <li>-자치단체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li> <li>-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li> <li>-초기에는 스튜디오 작품을 크기만 키워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플립아트(plop art)라는 비난을 받음</li> <li>-점차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되면서 공공미술은 미술과 삶의 결합을 지향하는 미술로서 미술관이나 화랑에서는 전시되는 미술과 달라짐</li> </ul>	
<p>도시계획 속의 미술 Art in Urban 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li> <li>-도시디자인팀에 미술가 참여가 제도화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종합계획 수립, 기금제가 도입됨</li> <li>-라데팡스,바르셀로나,필라델피아,달라스,LA 등에서 시행하여 문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큰 성과</li> <li>-미술품 이외에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li> </ul>	
<p>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New Genre Public A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을 통한 시민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시민 문화공동체 형성</li> <li>-1970년대 미국 주민벽화운동과 1980년대 시카고 공공미술프로그램에서 시작</li> <li>-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li> <li>-시민에 대한 문화교육적 효과를 겨냥한 비디오 제작, 퍼포먼스, 미술공방운영, 정원가꾸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li> <li>-장르 또한 시각예술의 영역에서 영화,비디오,공연,음악 등으로 확대</li> </ul>	